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남김없이 버려라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의 적합한 뜻입니까?”
조주 스님이 침을 뱉었다.
학승이 물었다.
“그 일은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은 또 한 번 침을 뱉었다.

問 如何是祖師的意 師涕唾 云其中事如何 師又唾地

조사의 뜻? 나는 그것에 침을 뱉어 주리라. 침을 뱉는 뜻이 무엇인가 물었는가? 그것에도 나는 침을 뱉어주었다. 누가 감히 조주 스님의 침 뱉는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하겠는가? 마음이 추악함으로 딱지박기 때문이었던 사람은 조주 스님의 이 행동을 보고 추악하다고 뱀을 뱉어낼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그대들이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그대의 심성이 깊은 병이 들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가슴에 손을 대고 자문해보라. 일상에 흔들리고, 두렵고, 일처지지 않는가. 그대가 조주 스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늘 아래 자유로운 사람은 흔치않다. 법당에 올라가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참회하라. 그리고 초지일관 하나의 하두에 몸과 마음을 밀어 넣으라. 7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밝아질 날이 있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사문의 행(行)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행(行)을 떠난 것이다.”

問 如何是沙門行 師云 離行

무엇이 진정한 사문의 행인가? 그것은 사문의 행을 떠난 것이다. 출가는 자유를 찾는 여행이다. 한 날 한 시도 그 ‘무엇’에도 정착하면 안 된다. 수행자는 떠남의 삶을 인생으로 여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여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점점 저쪽 죽음의 세계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그 과정이 인생이듯, 수행자의 인생도 떠남의 인생이다.

우리는 원래 부처이다. 부처는 그가 그냥 살아가는 길이 부처의 길이다. 부처의 길을 가는 자가 정해진 행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때 묻은 행이 되고 만다. 인생이 한결같지 않듯 부처의 행도 한결 같지 않다. 부처는 그 어떤 행도 행할 수 있다. 그 행이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길이라면 부처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간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도 가야한다면 서슴없이 그 길을 간다. 따라서 부처의 길은 정해져 있지 않다.

학승이 물었다.
“참다운 휴식처를 노스님께서 가리켜 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가리키면 휴식처가 아니야.”

問 眞休之處請師指 師云 指即不休

마음이 편안하면 어디에 있던 편안하다.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편안하지 않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쉬는 것인가? 일체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지식, 지위, 생각, 철학, 종교, 불교, 승려 등 머리에 있는 것을 다 버리

버리고 태초의 인간처럼 원시시대로 되돌아가라. 오로지 그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가족만은 버리지 말라. 무심으로 일하고 또 일을 하라.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을 때는 모든 것을 갖게 된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상의 최고 부자와 최고 가난한 자이다. 정말 그렇다. 최고 부자는 다 가져서 행복하고, 가난한 자는 가지지 않아서 행복하다. 왜냐하면 절제한 거지는 세상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을 가지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편안하고 행복하다. 만일 머릿속을 철저히 비우기만 한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어떻게 버릴 것인가? 부처는 사자에 비유한다. 백수의 왕이다. 선문(禪門)에는 장부의 기개를 원한다. 부처의 자식은 누구나 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과감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다 버리고 홀로 걸어간다. 진정 부처의 기상을 이어받았다면 그 누구의 평에도 신경 쓸 것 없다. 코끼리처럼 묵묵하게 저돌적으로 부처님처럼 그 누구에도 의지하지 말고 걸어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험뎌져림이 없어서 마음이 마치 장벽과 같아야 가히 도에 들어간다[外息諸緣 內心無喘 心如障壁 可以入道]’고 했다. 수행자들은 명심하라.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쓴다는 것은 쉽다. 휴식처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결심으로 스스로 해야 한다. 휴식처는 일체를 떠난 곳이다. 또한 모든 곳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휴식처야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휴식처가 아니다. 휴식처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저열한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들추어 낸다

(영국따라 니카야)

나는 이럴 때마다 놀란다. 우리가 알기에는, 그분은 깨달으신 분이 아닌가.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주만상의 근본 이치를 깨달은 것이라 배웠지 않던가. 깨달음의 내용은, 어려운 말로 하면, 연기(緣起)라는 말로 정리된다.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렇긴 하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깨달음이나 가르침이 추상화(抽象化)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저 하늘 위에서나 벌어지는 일처럼 말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아함경)이나 (니카야)를 통해서, 그분의 언어를 좀더 가까이에서 들어볼 때마다 새삼 느끼는 바가 적지 않다.

그분은 추상화를 잘 그렸던 화가가 아니다. 구상화(具象畫)를 즐겨 그리셨다. 아니, 어쩌면 사진작가였는지도 모르겠다.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인간들이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마음씀씀이(用心)를 조용히 들여다 보신다. 카메라 앵글을 들이댄다. 아주 가까이 대고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클로즈업(close up)한다. 그 장면을 크게 인화하여, 우리 눈 앞에 대준다. 보라, 이것이 그대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그대들이 연출하고 있는 그림이다. 이 무상한 세월 속에서 ---,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장면이 한 둘이 아닌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 언어생활을 많이 짚어서 보여준다. 사진작가들이 다 그렇겠지만, 부처님 역시 놀라운 관찰자이다.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그분의 관심은 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에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주의자였다. 그는 현실의 인간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類型化)한다.

- ①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드러내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칭찬거리를 드러내는 사람.
- ② 질문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말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 사람.
- ③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는 사람과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

④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자랑거리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①에서 ④에 이르는 각 항목에서, 앞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고, 뒷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홀륭한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일야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pp.515-516. 참조.) 나는 ‘저열한 사람’일까, ‘홀륭한 사람’일까? 혹 질문을 받지 않았을 때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정도는 아니라 해도, 질문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수준은 아닌가?

도대체, 왜,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나와 타자가 대립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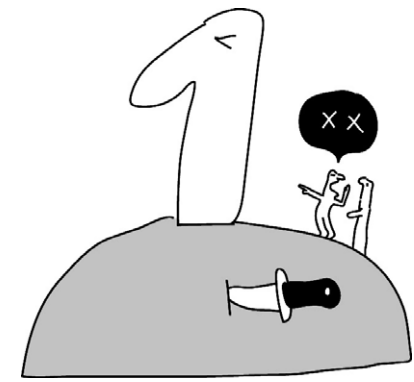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는 언어생활이야말로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기인(起因)하여 ‘나’를 더욱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나’를 얹어고, 그 ‘나’를 내다버림으로써, 나는 ‘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자와도 하나로 어우러지고, 타자를 위해서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 부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훗날, <천수경>의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으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영국따라 니카야>의 이러한 말씀에서 시발(始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 나는 다른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결점을 제3자에게 말한 일이 없는가? 오늘 하루, 나는 다른 사람이 묻지도 않았는데, 나의 장점을 과대포장하여 제3자에게 선전할 일은 없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30>

조건에 따라 상호의존 변화하는 법칙

연기설-① 연기의 의미

불교의 핵심사상 중 하나인 연기설(緣起說)의 산스크리트어는 빠라티뜨야-삼우뜨빠다(pratītya-samutpāda)이다. 이 말을 풀어보면 ‘연해서 혹은 의존해서[빠라티뜨야], ‘일어나다, 발생하다[삼우뜨빠다]’는 의미이다. 즉 ‘상호의존해서 일어나다’는 뜻이며 ‘조건에 따라 생겨난다’고도 바꿔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모든 현상이 조건에 따라 상호의존해서 일어나는 원리를 차연성(此緣性) 혹은 상의성(相依性)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기설은 사법인(四法印)의 가르침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사법인의 가르침 속에서 모든 현상은 고정된 것이 없고 생멸변화하는 것이지만 그 변화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에 기반 해서 작용하는 것이다. 이 작용의 법칙을 ‘연기’라고 한다. 이 법칙은 부처님이 연기를 설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작용하고 있는 세상의 작동 원리이다. 즉 부처님은 연기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진실을 발견한 것이다.

초기 <아함경(阿含經)>과 빨리 경전에서는 연기설을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멀하기 때

문에 저것이 멀한다’라고 설명한다. 연기를 정의하는 위의 문구야말로 부처님이 깨달은 지혜의 내용이다. 즉 모든 현상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연기설은 모든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나 모든 것은 정해진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세계관을 거부한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각각의 원인과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연기설은 또한 불교의 근본설이며 법[법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초기경전에는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든가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나(부처님)를 본다’라고 돼 있다. 즉 연기설을 이해하면 불교를 이해한 것이 된다.

원시불교뿐만 아니라 대승불교 혹은 중궁이나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교의 중심사상은 연기설이다. 연기설이야말로 다른 종교나 철학과 구별되는 불교의 독자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교의 독자적인 특징이 불교의 각 학파에서 완전히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파불교(部派佛敎)에서는 연기론을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든 인생의 변화는 자신의 업(業)에

서 비롯되었다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를 업감연기설(業感緣起說)이라고 한다. 유가행파(瑜伽行派)에서는 부파불교의 업감연기설에 아뢰야식연기설(阿賴耶識緣起說)을 더해 설명한다. 우리가 짓는 신구의 삼업은 모두 아뢰야식에 저장되고 동시에 아뢰야식은 다시 우리가 짓는 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승의 범성종(法性宗)에서는 진여연기설(眞如緣起說)을 내세운다. 진여는 범어로 타타타(tathata)라고 하는데 현상을 초월한 보편적인 유심체(唯心體)이며 연기의 주체이다. 즉 주관과 객관의 모든 것은 아뢰야식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근원이 진여의 작용이 있다. 다음으로 화엄종(華嚴宗)의 법계연기설(法界緣起說)이 있다. 이 연기설은 중생과 부처님, 번뇌와 깨달음, 생사와 열반 등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며 이 세상은 상호 의존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궁극적으로는 통일돼 있다는 견해이다. 법계연기설은 현상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의 통합과 융화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만 연기설은 어떤 학파의 학설이든 연기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 세상이 상호의존에 의해 생멸변화하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것은 없다는 관점에서 일치한다.
日 興 國 大 佛 教 學 科 學 者 · 前 本 宗 師 智 大

설법연수원을 통하여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특약】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이 스피치 기법
- 40년 노하우, 전문가인 김철희 박사의 특별지도

【특약】

- 종합 반 : 00명
- 소수정예 특별반 : 0명
- 개인지도

【특약】

- 자격 : 승려, 법사(포교사), 불교포교와 설법 화술에 관심있으신 분
- 기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 강 의 : 종합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9시
- 소수정예 특별반 개인지도 - 상담후 결정
- 장 소 : 본 연수원 강의실
-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진도식 교육이 아니고 훈련식 교육임)

【설법연수원 회장 우물 김 철 희 박사】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최먼시술사

【설법연수원 원장 처 명 (선광)】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동방불교대학 졸업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자격증 취득(심리상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한국 설 법 연 수 원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3가역 1번 출구
 연수원 : 02)747-1567 / 010-7248-1567

삼천만원의 평생인연

희향선원에서 평생 함께할 가족을 모십니다

희향복지원 1인1실 평생거주할수 있고 원룸식으로 분양합니다. 장례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1인 1실 계약금 1천만원 공사 시작과 동시에, 올 9월 예정 중도금 1천만원은 공사중에 내시면 되고, 입주시 1천만원 잔금을 내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이는 60세 이상분만 가능하지만 분양을 미리해 놓으시고 나중에 들어 오시면 됩니다. 모집인원은 남 녀 20분만 평생모십니다.

병자나 암 환자도 들어오시면 사찰음식으로 식단을 만들어 드리고 명상과 운동, 기도로 병 쾌차발원을 도와 드립니다.

해명스님과 평생 가족이 되실 분은 꼭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공덕을 다른이에게 바치는 희향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 원 문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이나 변하는 모습따라 뒤바뀌는 여검으로 갈팡질팡 생사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이니 좋은 인연 희향선원 그늘 밑에 동업 보살되어 지고, 괴로운 첫물음은 인생살이 시작이요 외로운 끝 놀라움은 이세상 등짐이니 뜬 뜬 마음 가라앉혀 보리도를 밝혀내고 부처님담 희향선원 함께 사는 동업보살 되시고 좋은 인연 만나기를 바랍니다.

희향선원 주지 해명 함장

●문의 : 희향선원 011-771-7575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정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서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